

망자와 진실게임... 위기의 이완구

성 전회장 3000만원 전달 녹취록 여당 내부서도 "빨리 수사 하라" 헌정사상 첫 현직총리 수사 가능성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메모에서 이완구 총리 이름이 나온 데 이어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14일 공개되면서 이 총리는 지난 2월 어렵사리 임명장을 받은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여당이 검찰에 '이 총리부터 빨리 수사하라'는 요구를 하고 이 총리도 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는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잇단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미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총리로서는 금품수수 등 둘러싼 진실 여하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자체만으로도 총리직 수행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측이 나온다. 각종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남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총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성 전 회장과 관계를 부인했다.

이 총리 측은 '성완중 메모'에 이 총리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0일 "성 전 회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 측은 특히 성 전 회장이 주도한 충청출신 모임인 '충청포럼'에 이 총리가 정치인 중에선 이례적으로 가입하지 않았고, 이 총리가 총남지사 시절엔 경남기업이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점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웠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각박한 사이였다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이 총리가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15차례나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대화 내용을 추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부풀어올랐다.

또 이 총리는 충청포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충청포럼이 총리 인준 과정에 이 총리를



금품수수 진실, 이 항아리는 알까?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 진실공방이 이어진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집무실 입구에 부정부패 척결 다짐 항아리가 놓여 있다. 이 항아린 정홍원 총리 재임기간인 2014년 8월 부정부패 척결 실천 국무총리실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지지는하는 내용의 현수막 수천 장을 충청지역에 내거는 등 이 총리를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총리의 '오라가라' 해명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에서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당시 이 총리가 지원 유세에 참여했다는 사진이 공개돼 이 총리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당에서 충남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2~3차

레 유세장에 갔지만 투병 중이어서 지원 유세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총리는 이미 망자(亡者)가 된 성 전 회장과 정치적·도덕적 명운을 걸고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고 검찰 수사에 운명을 맡리게 됐다.

혈액암이라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섰고, 인사청문회 고비를 돌파했던 이 총리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로 보이는 '성완중 파문'의 파고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000만원 회계 처리 했나요"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성 전회장 사망전 신문 인터뷰서 금품 전달 액수·명목·장소 공개

성완중(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건넸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14일 공개됐다. 검찰 수사의 단서가 흐릿하게나마 하나씩 잡혀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자 직전 신문 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액수뿐만 아니라 돈의 명목, 이 총리를 찾아갈 당시 정황까지 상세히

밝혔다.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때 이완구 당시 후보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다. 성 전 회장은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답했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기부한

돈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직은 성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밖에 없다. 검찰은 돈이 오갈 당시 정황에 대한 성 전 회장의 말에서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그때 선거사무소도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양반한테 3000만원 주고..."라고도 했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를 찾아갈 때 수행한 인물이나 캠프 내부의 목격자가 있다면 수사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

"총리 사퇴하라" "진상 규명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성완중 리스트' 치열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이 '성완중 리스트' 블랙홀에 빠져 들고 있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에 이어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내용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성 전 회장으로 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이 총리의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등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백근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현 정부의 사정고 관련해 이 총리가 사정대상 1호라고 했다"며 "이 총리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성 전 회장은 3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거짓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이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어 백 의원은 이 총리가 총리 후보자이던 시절, 총리 인준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충청 지역에 내걸린 경우를 재차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총청인이 듣기에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이다"며 "이완구가 작용해서 붙었던 말씀인가.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냐"고 이 총리를 몰아붙였고, 이 총리는 "고인이 굉장히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첫 질의자로 나선 진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파문은 현 정부에서는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상황을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가 있다"며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부,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부이다. 이 극명한 차이를 국민은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 참여정부에서는 성 전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느냐"고 질문하자 "만약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성완중 금품전달 비밀장부 있다"

지인 "목숨 끊기 전 사람들 만나 기록"... 검찰 실체 확인 나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점검하고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장부가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 주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14일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죽은 한 명을 대동하고 과거에 금품을 건넨 인물이나 금품 전달에 동원된 사람을 일일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이 이들을 만나 과거에 자신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줬는지, 전달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등을 물었다"며 "함께 있던 측근은 그 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자세하게 받아적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이처럼 성 전 회장이 금품거래 정황을 되새겨 기록해 두기 위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모(52)씨를 꼽았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이 신문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았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

언론인 출신인 윤씨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깊으며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냈다. 정계 진출에 뜻이 있었고 2011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는 당 대표 후보였던 홍 전 지사 측 경선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치권 인사는 "성 전 회장이 당시 경남기업의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에게 '돈을 찾아서 윤씨에게 맡겨라'고 지시했고, 윤씨는 이를 홍 지사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은 숨을 거두기 이틀 전인 7일에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느냐', '어떻게 맞서서 전달했느냐' 등을 일일이 물었고 함께 있던 측근에게 문답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돈을 찾아온 사람, 전달한 사람 등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금품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1년 6월 전당대회를 전후해 서산 지구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 인사한 것 외에 성씨를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언론에 거론되는 윤모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중씨 측근"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비엔날레 프리미엄으로 앞서가라!

비엔날레와 서광주IC를 가까이서 누리는 특권에 단지 앞 초중고교의 든든한 교육특권을 더했다.

단지내 LED조명등 적용
무제한 전매가능
쾌속교통
명문학교

모델하우스 공개중

용봉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아델리움

최상의 교육환경과 쾌속교통에 격이 다른 문화와 휴식까지 - 용봉이 자랑하는 특별한 가치들을 한 곳에서 누리는 특권을 소유하십시오.

명문교육 특구
단지 앞 태평초, 경신중, 경신고
가까이 있고, 단지 인근에 교육청, 공립고, 금호중학교까지 있는 든든한 교육 네트워크

사통팔달 교통망
공주 안방 마다로 고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서광주IC가 단지와 가깝고, 버스/터미널과 광주역이 가까운 사통팔달 교통 네트워크

특급 문화
광주비엔날레, 시립미술관, 시립관악당, 문화예술회관 등 중추를 대표하는 특급 시설이 모여있는 문화 네트워크

풍요로운 자연환경
공주의 대표 스포터스인 중앙공원과 용봉채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맑이 다른 풍수와 온풍을 향유하는 그런 네트워크

청약일정	특별공급 4월 15일(수)	일반공급 1순위 4월 16일(목)	일반공급 2순위 4월 17일(금)
-------------	--------------------------	------------------------------	------------------------------

84㎡ A/B 총 398세대

문의 전화 1577.8733

▶ (주)인국종합건설(주)
▶ (주)인국주택건설(주)
▶ (주)인국건설(주)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29-15 ▶ 분양문의 별도 공문서 ▶ 연면적 : 56,597.4431㎡ ▶ 층수/구 33층 A/B Type
 ▶ 시공 : 한국종합건설(주) / 한국주택건설(주) ▶ 시공 : 한국건설(주) ▶ 지하 1층 미문 30여개 포함 2층 이상 33층의 구성에 따라 차등분류다.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3D시각의 이미지를 들기 위한 것으로 인물의 세세, 디자인 및 대립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